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태도변화 방안에 관한 고찰

오 해 섭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A Study on the Methods of Regional People's Attitude Change for 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Hae Sub Oh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Summary

All kinds of environmental problems are related to each local environment. For solving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hange regional people's Environmental Attitude in their particular community. In order to provide methods of the regional people's attitude change for solution to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

1) the systematical and continuing education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for inhabitants 2) the persuasion process for regional people, 3) the inducement of their actions toward environmental problem solution, and 4) the social pressure through laws and institutes.

### I. 서 론

태도 및 태도변화에 관한 이론은 사회심리학에서 일찍부터 중요한 관심사로 다루어져 왔으며,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념이다. 그 이유는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이며 행동을 예측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할 때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태도에 의해 행동하므로 태도를 변화시키면 행동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의 의도된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그 행동과 관계된 태도를 먼저 변화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학교의 교육이나 부모의 훈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아이들의

태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태도나 흥미 및 가치관은 한 유기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들과 언제나 상호작용하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어린시절의 발달초기에는 미분화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여러 생활경험에 직면하게 될 때 특정한 행동적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그 개인이 특정한 태도, 흥미, 가치관을 가졌다고 말한다.

한 개인의 태도는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회생활을 통하여 한 사람의 태도가 다른 사람의 심적, 물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관과 함께 태도는 그 사회의 생활양식에 따라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되는 것

이다. 따라서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와 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사회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나 환경과피를 일삼는 산업체의 윤리적인 양심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에 있어서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주민들로부터금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기 이전에 내 자신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반성해 보고 이러한 태도 및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설득하고 교육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태도와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순수 사회과학 분야인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및 문화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환경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적용이 미흡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환경오염이 급속하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의 태도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며, 환경교육의 특성으로 유도된 행동을 통해서만이 더욱 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태도를 강화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주인이면서 삶의 정주권으로 가꾸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태도 및 태도변화를 위한 방안과 실천을 위한 행동과의 관계를 모색하여 지역주민의 환경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태도의 개념 및 행동과의 관계

태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학자와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확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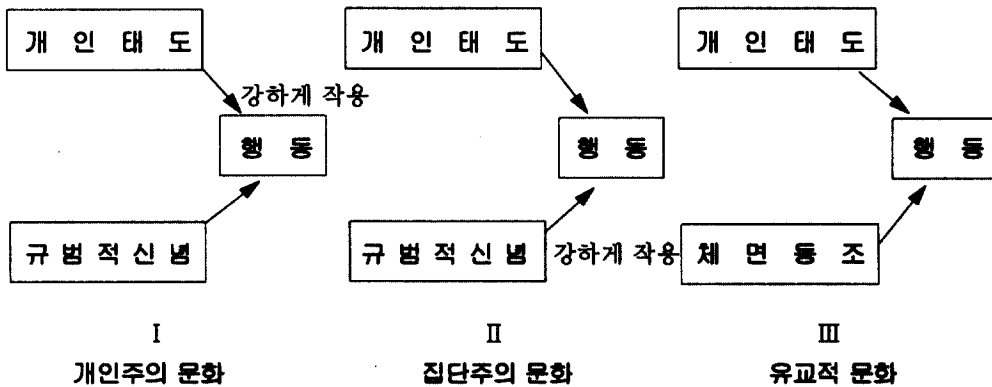
기는 어려우나 영역에 따라 독자적인 발전과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태도는 본래 자세를 뜻하는 일본용어로 쓰여졌으나 H. Spencer(1862)와 A. Bain(1868)에 의해 심리학에 도입되었다. 이들은 일종의 선입관, 판단 및 사고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자기와 모순된 관념을 거부작용하는 선입관을 지적하는 용어로 사용했다(1962 : 최상선, 재인용). 즉, 태도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찬반 또는 선호의 성향이며, 어떤 심리적인 대상에 대하여 찬반에 영향을 주는 것, 평가, 선호, 긍정 혹은 부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지닌 태도를 특별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람은 자기의 진정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태도가 개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겉으로 드러난 의견이나 행동이 그 사람의 태도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회심리학 분야에 있어서는 중요한 단위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태도의 정의는 Allport(1935)가 사회심리학 핸드북 초판에서 제시한 내용으로서 "태도란 태도 대상과 상황에 관련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인 영향력을 주는 심적이며 생리적인 준비상태로서 경험을 통해 조직화 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Olsen & Zanna(1993)는 태도가 경험에 의해 획득된 심적 준비상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인지적 요소는 태도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혹은 중립적인 상념과 지식 등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생각과 지식이 포함되어 있어 복잡성(cognitive complexity)을 띄고 있다. 아울러 인지 요소는 보고 듣는 것에 의해 수시로 변하며 망각되기도 한다. 둘째, 평가요소 또는 정서요소로서 태도 대상에 대한 인지적 요소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요소가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평가요소는 단순성과

지속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인지요소가 망각된 후에도 정서요소는 지속되어 행동에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동요소는 태도 대상과 관련된 호의적 또는 혐오적으로 취하는 의향이나 행동을 말한다. 반핵운동이나 환경운동에 서명하는 등의 행동적인 측면이다. 흔히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실질적으로 태도는 행동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이다. 환경문제의 야기

에 있어서도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대부분이 동의하면서도 환경과피 행위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태도가 전적으로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제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태도가 행동을 결정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태도를 결정 짓는 경우를 고려하여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간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이성적 행위모형과 문화 (나은영, 1994)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성적 행위모형에서 행동의도를 결정짓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상대적인 비중을 문화적인 차이와 관련시켜 논의할 수 있다. 즉,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두 가지 요인 중 자신의 태도가 주관적 규범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 결국 행동은 개인이 취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지닌 가치판단, 태도가 되기 때문이다(Triandis, 1990). 그러나 사회적 규범, 특히 집단내 성원들과의 조화가 개인의 행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이성적 행위모형의 두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은 주관적 규범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모형 II; 오세철, 윤덕현, 1982).

최근에 이철(Lee, 1990)은 유교문화권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성적 행위모형을 변용시킨 모형

III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의 특징은 규범적 신념을 체면유지와 집단동조의 압력으로 대치한 것이다. 체면유지압력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체면이 손상될 지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압력이며, 집단동조압력은 주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 짐으로써 느끼는 압력이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양식이나 존재상태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른 행동양식이나 존재상태보다도 선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태도가 내재화되면 행동에 대하여 기준을 부여하게 되고, 그것과 관련있는 태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판정하고 비교하게 된다.

2. 태도변화에 관한 인지부조화 이론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태도에 의한 행동의 예측이나 행동을 통한 태도의 변화 등을 밝힘으로써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행동과 태도의 일치성에 대하여 연구를 주도한 이론이 인지부조화 이론(Festinger, 1957)이며, 이 이론은 인간의 사회행위와 그 심적기제를 조명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Eagly & Himmelfarb, 1978). 그 주된 내용은 태도변화에 관련된 각 요소들은 서로 세 가지 형태의 관계를 갖게 된다. 즉, 상호 조화로운 관계, 상호 부조화 상태, 그리고 상호 무관한 상태인데, 이 중에서도 개인의 신념과 행동이 부조화 상태에 있으면 심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조화로운 상태를 회복하려는 동기가 존재한다. 이 불편함의 크기는 개인이 소유한 신념의 정도와 부조화를 이루는 요소들이 많을수록 커지며, 부조화 감소동기와 정비례 관계에 있다(한규석, 1995).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태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추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싫어하면서도 먹게 되는 경우와 자신이 혐오하는 사람 앞에서 친절함을 보이게 될 때 불편함을 느끼지만 태도가 항상 변하지는 않는다.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 오페수의 무단 방출이나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인지적인 태도와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인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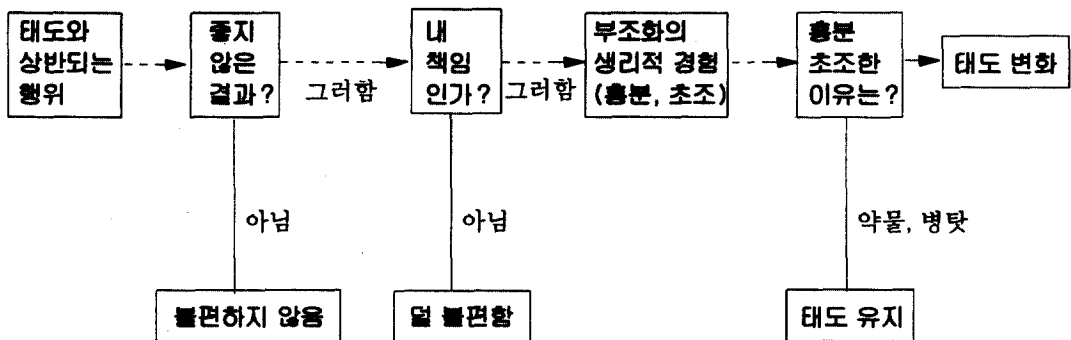
조화에 의한 개인의 태도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태도와 상반된 행위를 취한 책임을 스스로가 느끼고, 그 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게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Collins & Hoyt, 1972; Cooper & Fazio, 1984).

지금까지 논의한 태도와 행위의 불일치는 다음과 같은 상황조건과 결부되어야 한다.

첫째, 행위의 선택: 태도와 관련되는 행위가 상황적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해졌다는 인식이 중요하다(Linder et al., 1967). 이 경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부조화를 경험한다. 스스로의 책임일 경우 행동이 태도와 모순되는 경우에 태도변화가, 행동이 태도와 부합하는 경우라면 태도가 더욱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Scher & Cooper, 1989).

둘째, 돌이킬 수 없는 행동: 취해진 행위가 취소될 수 없다고 느껴야 한다. 권닝을 이미 했거나 하기로 굳게 다짐을 한 경우에 부조화가 나타나지만,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거나 취소할 수 있다면 부조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행동의 결과 예측: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거나 예견할 수 있음에도 취했을 때 부조화는 발생한다(Goethals et al., 1979). 그러나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분명



〈그림 2〉 인지부조화의 과정(출처:Cooper & Fazio, 1984)

히 있다면 부조화 효과가 나타난다(Sogin & Pallak, 1976).

태도-행동의 괴리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일반적으로 행동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되는데 반해서 태도는 훨씬 추상적인 수준에서 측정하는 경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측정에 대한 부합성의 수준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Ajzen & Fishbein, 1977). 구체적인 행동은 구체적인 태도의 측정과 연결시켜 그 괴리 및 일치성을 알아보아야 한다. 환경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환경보존과 관련된 행동변인들을 측정함으로써 논리적인 예측치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Weigel & Newman, 1976).

태도의 불일치 상황에서 태도-행동의 일치 효과는 특히 태도가 약한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태도가 강한 사람들에게서는 태도에 부응하는 행동이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III.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태도변화 방안

지역 주민의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태도의 형성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경로에는 사회화, 인지작용, 조건화, 그리고 행동의 합리화가 있다.

사회화의 경로는 어린 아이가 가정, 소속집단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부터 새로운 가치와 태도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인지작용 경로는 사람이 새로운 장면에 당면하여 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때 과거에 이미 습득한 자신의 가치관을 이 상황에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화에 의한 태도획득은 지역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직접 체험한 결과를 토대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합리화는 인간이 자기의 행동이나 결정을 정당화하는 습성에 의해 새로운 태도를 갖

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형태의 태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정들이 서로 연관되어 형성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상의 근거를 토대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접근방안을 살펴 보면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 1. 지역 주민을 위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환경교육 실시

환경 문제를 지역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이 우리에게 활동 무대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소재와 물자의 공급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과 인간 생활은 총체적 조건(total condition of surround)이라는 의미에서 환경과 동일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은 주체적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생산과 개발을 위한 객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의 측면과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 실현에만 중점을 둔다면 새로운 지역 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환경 오염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져 온 반사적인 결과로서 나타난 지역 문제로서 국가 및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 교육은 지역과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조화로운 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이명우, 1989). 또한 교육적 처방은 미래 지향적인 것이므로 일시적인 실효성은 적을지라도 비용의 절감 측면이나 주민들에게 환경친화적인 가치 및 태도를 형성시킴으로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방법론의 전개에는 다양한 기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유형에 의하면, 첫째 문제 발생과 관련이 있는 환경 전반에 대한 인식(awareness), 둘째 바람직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가치관과 자세의 확립(forming attitude), 셋째

환경 문제의 선택적 해결을 위한 질적 향상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을 위한 행동 개시 (UNESCO, 1989)로 요약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 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 ① 환경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교육 내용도 지역별로 다르게 편성되어야 한다.
- ② 새로운 환경관을 확립하고 그것을 교육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 ③ 환경 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학문 영역과 관련교과를 점검해야 한다.
- ④ 환경 보전은 환경의 이용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의 관계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⑤ 환경의 본질은 공유 개념속에서 인식되어야 하는 만큼 공동 의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 확립이 중요하다.
- ⑥ 자연 환경은 크게 토지, 물, 공기로 분류되고 있지만, 인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환경 체제가 유지되는 이치에 따라 용량보다 질

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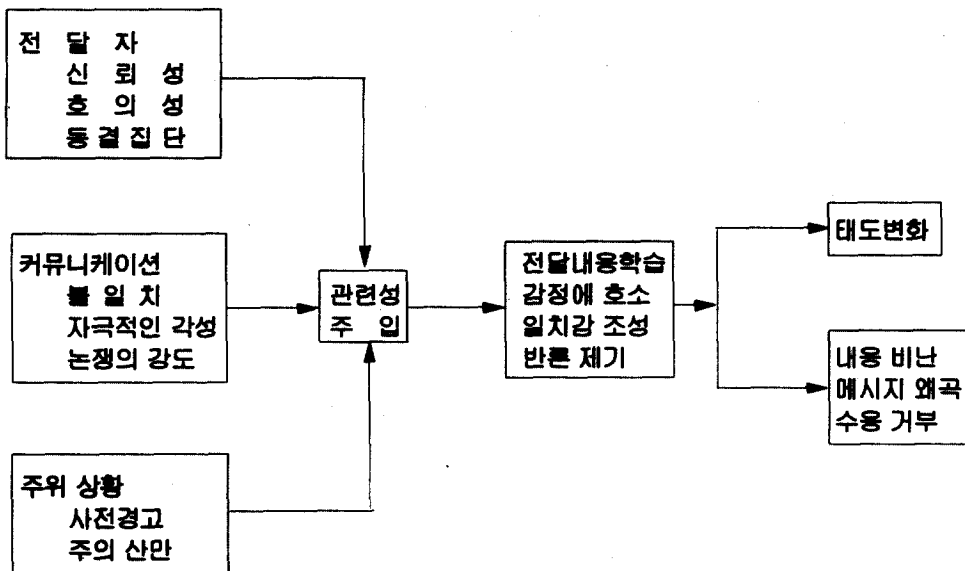
⑦ 환경 교육에 부합되는 실천 행동을 일상 생활에서 습관화시켜야 한다.

환경 교육도 환경 문제의 현명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는 자연 환경에 대한 이치의 터득, 보전이 선행된 합리적 이용의 방향 설정, 올바른 가치관에 기초를 둔 행동과 자세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 2.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통한 방안

설득에는 주로 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인지 작용에 호소하는 종류와 감정을 조건화에 의해 직접 조작하는 두 가지가 있다.

주민의 인지작용에 호소하는 설득방법은 사회심리학자인 Hovland Janis & Kelley 등에 의해 실험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 후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를 통하여 설득효과를 높이려는 결과들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 인지작용을 통한 태도변화를 설명하려는 몇 가지 원칙이 제시되었다.



<그림 3> 설득과정 모델 (자료: Hovland & Weiss, 1952)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시켜 보면 첫째, 주민의 요구를 중시하고 요구에 부합되도록 호소해야 한다. 즉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나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직접 주민 스스로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둘째, 기존의 태도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점진적인 방법에 의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표현과 언행을 사용한다. 넷째, 간략하고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나 행동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다섯째, 중요한 요점은 몇 번이고 반복하여 문제의 중요성이나 환경악화의 심각성을 깊게 의식하도록 한다. 여섯째, 설득자도 지역 주민과 동등한 입장임을 강조하여 서로간에 괴리감을 조성하지 않음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하지 말고 다른 입장도 있음을 제시하여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권위있는 기관이나 지역 유지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음을 알림으로써 설득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 3. 지역 주민의 행동유도를 통한 태도변화 방안

이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두 개의 인지 또는 생각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면 부조화의 불쾌한 상태가 생기므로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없애기 위해 두 개의 모순된 요소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바꾸려 할 때 우선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는 방향으로 유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이다. 환경교육의 특성에 있어 인지적인 요소보다 행동의 변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다양한 자연보호 프로그램이나 환경오염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 등의 실천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지역 주민의 행동을 유도하여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 태도변화를 모색할 수가 있다.

환경에 대한 모든 이용과 개발이 인간 생활의 안정적 향상과 번영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보전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계획도 가치

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화의 논리는 철학에 기초를 두는 것이므로 실천적인 면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일시적인 환경의 파괴를 회복하는 데는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역 주민들의 잠재된 의식에서부터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은 누구나 토양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호흡하며, 물을 섭취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은 개인 각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철저한 개인 책임으로 정화처리하고 보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국가는 개인 차원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과 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민은 각 가정의 식생활에서 필요한 식사를 알맞게 조절하는 습관을 생활화함으로써 환경 오염의 원천인 쓰레기와 오수를 줄이고, 기업인은 각 사업장에서 매연과 폐수 처리를 철저히 하여 개인적인 이익에 앞서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Smith, 1982) 가치관 확립에 초점을 둔 주민의 행동 유도에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사회적 압력에 의한 태도변화 방안

사람은 어떤 집단에 속해있을 경우 그 개인은 집단이 표방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켜 소속감이나 동질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집단의 표면적인 압력이나 간접적인 압력이 작용하여 구성원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데 이는 개개인이 집단의 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동기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과 모임을 결성하여 이들에게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실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이에 대한 적지 않은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저항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제거하거나 혹은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사회적 압력의 수단으로서 환경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인간 자신에 의한 인간환경의 합목적적 형성' 이라는 적극적인 측면과, 둘째는 '환경에 관련된 인간활동의 규제' 라는 소극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환경오염의 규제만으로는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환경정책의 초점이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환경조성의 적극적인 측면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구연창, 1988).

또한 Pritwitz는 환경정책을 위험방어적 환경정책, 예방적 환경정책, 구조적 생태화 등 세 가지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다. 위험방어적 환경정책은 주로 원인제공자 원칙에 기인하는 환경정책이다. 예방적 환경정책은 무엇보다 환경침해의 구조와 기술에 원인을 돌리는 대책을 포괄해야만 하며, 구조적 생태화는 새로운 환

경친화적인 윤리에 기인하는 정책이다. 구조적 생태화는 근본적으로 환경에 친숙하고 환경에 올바른 태도를 취하며 그와 더불어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시도를 의미한다(이영희, 1992). 이들 정책수단들은 비록 허가나 명령 등 전형적인 행정법적 조치들뿐만 아니라 캠페인, 경제적 유인에 의한 방법 등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띤 조치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정책의 수단들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보완 및 병행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것은 이들 정책수단이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 정책의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정책수단에 있어 직접적 명령과 통제 방식(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

환경정책의 수단들을 개괄적으로 유형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환경 정책 수단의 유형

구 분	직접적 정책수단	간접적 정책수단
명령적 규제 (법적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방지 시설명령</li> <li>- 허가기준 설정</li> <li>- 배출허용기준 설정</li> <li>- 지도단속권</li> <li>- 경영상 배출 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행정지도, 기술 지원</li> <li>- 장비·공정 규제</li> <li>- 생산물·생산요소 규제</li> <li>- 홍보·교육</li> </ul>
시장유인적 규제 (경제적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부과금</li> <li>- 환경개선분담금제</li> <li>- 폐기물예치금</li> <li>- 오염 판매권</li> <li>- 오염 면허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물·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및 보조</li> <li>- 대체물질 개발 지원</li> <li>- 저공해 장비의 보조</li> </ul>
정부에 의한 직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화시설 설치 운영</li> <li>- 폐기물처리시설</li> <li>- 환경유관기구 예산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자적 환경기술 개발</li> </ul>

자료 : 김재영 외, 1996. 환경정치와 환경정책, p. 245.



#### IV. 결론 및 제언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나 범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가장 시급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동시에 협의적인 측면에서는 나라마다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의 논의와 같이 지역의 지도자를 비롯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도적인 사람들이 먼저 환경에 관한 기본 지식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사전 인지와 함께 실천에 대한 강한 신념이 필요하다. 이들은 먼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아직까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기존의 잘못된 생각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한 노력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주로 생활의 편익을 추구하는 물질의 개발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심각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만큼 미래에 있어서는 더욱 더 환경문제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주변환경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보존함과 동시에 현재보다 나아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 각자가 환경에 대한 태도변화와 함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심리학의 태도변화와 행동이론을 이용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논의된 네가지 접근방법은 1) 지역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 교육 실시, 2) 지역주민들을 설

득함으로써 태도의 변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 3) 주민들의 행동유도를 통해 태도변화 방안, 4) 환경관련 모임이나 단체를 구성 및 환경정책 등의 사회적인 압력을 통해 직·간접적인 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밝힌 대로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다 할지라도 문제해결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개인 혹은 단체나 지역주민 모두가 문제해결의 강한 의식과 행동의 생활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강한 주인의식을 지녀야 하고, 그 지역이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과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 가야 할 삶의 공간임을 인식하며 생활할 때 환경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태도변화 및 행동을 위한 접근방안이 될 수가 있다.

#### V. 참고 문헌

1. 김재영의 3인 공저, 1996. 환경정치와 환경정책, 삼우사.
2. 김명찬, 1993. 농업고등학교 농업교사의 농업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나은영, 1994. 태도 및 태도변화 연구의 최근동향, 한국심리학회지.
4. 노채영, 1991.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 신세호, 1996. 한국의 환경교육, 교육과학사.
6. 이필렬외 6인 공저, 1995. 교양환경론, 도서출판 따님.
7. 차재호, 1985. 1970년대 말에서의 가치, 태도, 신념으로 본 한국인의 세대차, 사회심리학연구.
8. 최영국·이순자, 1996. 환경인식이 환경분쟁에 미치는 경향분석, 국토개발연구.
9. 한규석, 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10. 현금히, 1990.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일치

- 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1. 황만익, 1990. 환경문제와 환경교육, 환경교육 창간호.
  12. Allport, F. 1935. Attitudes. In C. Murchison(ed.),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MA: Clark University Press.
  13. Collins. B. E., & Hoyt M. G. 1972. Personal responsibility and consequences: An integration and extension of the "forced compliance" literatur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8, pp. 558~593.
  14. Cooper & Fazio, 1984. A new look at dissonance theory. In L. Berkwitz,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7, New York: Academic Press.
  15.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 & Peterson.
  16. Hovland & Weiss, W. 1952. The influence of source credibility on communication effectiveness. *Public Opinion Quarterly*, 15, pp. 635~650.